

‘김도영·올리 복귀’ KIA, 원정서 연승가도 달린다



김도영



5~7일 사직 롯데전...8~10일 창원 NC전
승률 0.505 단독 5위...4위 SSG와 1게임차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원정 6연전에서 연승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

KIA는 지난주 주중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둔 뒤 주말 한화이글스에게 1승(2경기 우전취소)을 달성했다. 그 결과 48승 4무 47패로 승패마진을 다시 플러스(+1)로 전환함과 동시에 5할 승률(0.505)을 회복했다. 순위 또한 5위로 복귀했다.

이번 주부터 '올리의 원정 2연전'에 돌입하는 KIA는 다시 한번 순위 격동을 겪을 전망이다.

선두권과는 거리가 있다. 리그 공동 1위 한화·LG트윈스와의 10.0게임차. 그러나 3위 롯데지아인츠와는 6.0게임차고, 4위 SSG랜더스와의 단 1게임차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경기차다.

다만 공동 6위 kt위즈·NC다이노스가 0.5게임차로 KIA를 맹추격하고 있다. 8위 삼성 또한 2.5게임차로 좁혀진 상태다.

더욱이 KIA는 이번 주 주중 롯데와의 경기 이후 주말 NC전이 예정돼 있다.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재 KIA의 분위기는 좋다.

먼저 '슈퍼스타' 김도영이 돌아왔다.

김도영은 지난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한화이글스와의 주말 2차전에 앞서 1군 엔트

리에 등록됐다. 지난 5월 27일 키움히어로즈전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친 지 67일 만이다.

그는 지난 시즌 141경기 544타수 189안타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40도루 타율 0.347로 리그를 점령했다.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최소타석 내추릴 사이클링 히트 등 다양한 대기록을 쏟아내기도 했다. 2024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그의 복귀는 팀 타선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수 아담 올리 역시 복귀했다. 그는 지난 6월 25일 고척 키움히어로즈전에서 6이닝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이후 6월 28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어깨에 빠근함을 호소했다. 이후 회복에 전념하면서 최근 다시 1군에 복귀했다.

올 시즌 올리는 부상 전까지 16경기 95이닝을 8승3패 평균자책점 3.03으로 호투했다. 켈리스타드도 12회에 달했고, 승수 또한 팀 내에서 가장 많다. 연일 호투를 펼쳤던 그의 복귀로 KIA 선발로테이션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KIA 팀 타선에선 반가운 소식이 많다. 부상에서 복귀했던 나성범과 김선빈의 타격감이 상승세에 있다.

나성범은 지난주 4경기에서 17타수 7안타 1홈런 3타점 타율 0.412를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었다. 그간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 맨타를 휘두르며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김선빈 역시 지난주 4경기에서 16타수 5안타 1타점 타율 0.313의 성적표를 달성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마운드 또한 분위기가 좋다.

'대투수' 양현종은 지난달 3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 5.2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비록 이날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최근 6경기에서도 켈리스타드를 3차례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 새얼굴 김시훈과 한재승이 불펜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팀 마운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KIA는 이런 상황에서 주중 경기를 롯데와 치르게 된다.

롯데는 현재 57승 3무 44패 승률 0.564로 리그 3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8위(4.53)로 KIA(평균자책점 4.34·7위)를 밀돌고 있다. 그러나 팀타율이 0.277로 리그 1위에 있다. '소총부대'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이는 중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6승 6패로 팽팽하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만날 롯데는 5일 김보아를 선발로 내보낼 계획이다.

이에 KIA는 네일을 선발로 투입한다.

롯데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창원에서 NC를 상대한다.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가 전향에 성공한 KIA가 이번 주 경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아담 올리

찬란하고 화려했던 10년... 손흥민, 토트넘 떠난다

마지막 경기... 선수 행거리에 눈물 차기 행선지 질문엔 "기다려 달라"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서 이런 선수로 성장했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로 자리매김 했을까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과 작별하는 손흥민이 한국 팬 앞에서 마지막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마친 뒤 벅차오른 감정을 이렇게 전했다.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의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마치고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이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시는 데 대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아직 축구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더 즐거운 모습, 더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선발로 출전에 약 65분을 뒀 손흥민은 교체 사인이 나오자 그라운드 위의 토트넘 동료들, 뉴캐슬 선수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고, 경기 뒤에 동료들의 행거리를 받은 뒤엔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평평 울기도 했다.

손흥민은 "여러 감정이 복합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안 울 줄 알았다"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보낸 팀을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니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선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 보니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경기를 했고, 팬, 동료, 상대 선수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며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밝게 웃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전후로 동료들로부터 "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한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동료 선수들로부터 행거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입으로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팀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선수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행복했다"고 전했다.

절친 벤 데이비스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다"며 "나는 그 친구 아들의 대부인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랑스러운

대부가 되어 하니 축구선수로서, 사람으로서 멋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주목받는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를 암시하는 '힌트'를 줬다.

손흥민은 "아직 결정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어제 좀 좋은 정보를 드렸으니, 오늘은 한발 양보해달라"며 웃었다. 연합뉴스

광주FC 아사니, 시즌 중 돌연 이적 확정

이란 에스테그랄 테헤란과 1년 6개월 계약

프로축구 광주FC 외인 공격수 아사니가 시즌 도중 갑작스러운 이적을 발표했다. 이란 프로축구 에스테그랄 테헤란 구단은 지난 3일(한국시간) 구단 SNS를 통해 "아사니와 1년 6개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아사니도 자신의 SNS를 통해 에스테그랄의 영입 완료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적 소식을 인성했다.



아사니

아사니는 광주의 핵심 자원이자, 올 시즌 21경기 8골 2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유의 원발 슈팅과 감각적인 드리블로 명실상부한 K리그 대표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에서는 10경기 9골 1도움이라는 미친 활약으로 광주의 ACLE 8강 진출 새역사를 이끌기도 했다.

광주FC는 아사니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사니가 보스만들(계약만료 6개월 미만 선수)은 자유롭게 이적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규정)을 통해 구단의 동의 없이 에스테그랄 이적을 확정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송원대학교 야구부가 지난 7월 3~29일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송원대 야구부, 제80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 '3위'

송원대학교 야구부가 지난 7월 3~29일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보은군과 보은군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51개 대학 팀 1500여명의 선수·관계자가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송원대는 16강에서 동국대를 9대 2로, 8강에서

성균관대를 11대 3 쥘드게임으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다. 이어진 4강전에서는 이번 대회 우승팀인 한양대를 맞아 분전했으나 4대 3으로 아쉽게 패했다.

고천주 송원대 감독은 "그동안 몰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학교, 학부모와 열심히 훈련해 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3위에 만족하지 않고 우승을 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